

광주관광공사, 연이은 수상 소식에 '함박웃음'

행안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대상 공공브랜드대상 2관왕 등 수상 민선8기 공공기관 구조혁신 성과 광주관광 SNS 홍보도 인정 받아

광주관광공사가 출범 2년차에 굵직한 수상 소식을 연이어 전하면서 민선8기 광주시 공공기관 구조혁신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1일 광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공사가 운영하는 공사 홍보 채널인 '비짓광주 SNS'가 제2회 공공브랜드대상에서 공익브랜드 부문 대상과 디지털마케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공공브랜드진흥원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추진된 제2회 공공브랜드대상은 공익브랜드, 디지털마케팅, BI·캐릭터 등 공공의 역할에 기여한 지자체, 기관 등에 수여됐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공공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했으며, 서울시 아리수본부가 시민참여부문 대상, 충청북도가 국가도시지역브랜드 최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2024 지방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고의 영예인 대상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데 이어 겹경사를 맞은 것이다.

이번 수상은 공사 출범과 함께 진행된 광주관광 SNS 채널 리브랜딩과 솜뿔 콘텐츠 강화라는 전략적 개편을 통해 이뤄진 성과로 더욱 의미가 있다. 주요 기획 콘텐츠로는 국내 관광 트렌드인 원포인트 여행을 주제로 한 '찐덕투어', 광주 개최 축제 사전 정보 제공 및 생생한 현장을 전달한 '페스타 광주' 등이 있으며,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로 광주의 문화·관광 자원들을 소개하고 있다.

올해 주요 성과로는 단일 콘텐츠 역대 최대 조회수 22만회, 전년 대비 팔로워 5000명 증가 및 인스타그램 이용자 상호작용 100% 상승 등의 성과와 함께, SNS

기자단 운영과 인스타그램 공동 게시 기능 도입으로 기자단이 로컬 크리에이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광주관광공사가 운영중인 '비짓광주'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SNS를 통해 광주의 매력적인 관광 자원을 국내외에 알리고, 광주를 머물고 싶은 체류형 관광도시로 브랜드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홍보하고 있다.

또 9월에 수상한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대상은 관광공사로 통합되기 전인 지난 2004년 지방공기업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출범한 이후 경영혁신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중앙정부 기관표창을 받은 사례다.

또한, 광주관광공사는 올해 전사적 차원의 재난안전 대응 체계 확립 및 부패방지 경영을 위한 국제표준 인증을 신규로 2건 취득해 공사 경영시스템 표준화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다중이용 시설인 김대중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한 재난안전 대응을 위한

비즈니스연속성경영시스템을 구축해 재난안전 분야 국제표준인 'ISO 22301' 인증을 지난 10월 획득했다.

여기에 지방공기업으로서 올바른 부패방지 문화확산 및 각종 비리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인증을 11월에 신규로 획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진강 광주관광공사 사장은 "이번 공공브랜드 대상 수상은 공사가 광주시 관광도시화와 함께 비짓광주 채널 활성화를 통해 지역 관광산업 발전 및 관광도시 광주 홍보를 위해 기울인 노력의 결실"이라면서 "앞으로도 특색있는 콘텐츠와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광주를 매력적인 관광도시로 브랜드해서 민선8기 광주시 5대 공약중 하나인 '상상이 현실이 되는 꿈쟁도시 광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민선8기 들어 광주시는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

난해 24개 공공기관 중 8개 기관을 4개로 통폐합하는 구조혁신을 추진한 바 있다.

광주관광공사도 같은 해 7월 김대중컨벤션센터와 도시마케팅 기관인 광주관광재단이 통합해 광역권 관광공사를 출범했다. 이는 부산, 인천, 제주, 경기, 경북, 대전과 함께 전국에서 7번째다.

통합 이후, 광주관광공사 임직원들은 '경영 효율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 슬림화(△4팀, 관리직 비율 30% 축소) △관광·MICE사업중심 인력배치(64%→72%) △유사·중복·저효율 사업 조정(전시△6개, 관광△11개)을 통한 예산절감(21억5000만원) 및 인적자원 관공부서 재배치(7명) △공모사업 참여 등 외부 자원 17억8000만원 확보 △관광·MICE 사업 확대로 역대 최대 매출액(239억, 전년 대비 43% ↑) 달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을 통한 성과를 창출한 바 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광주시, 5대 신활력벨트 가시적 성과낸다

고광완 부시장 '추진상황 보고회'

내년 상반기 옛 서창포구에서 영산강변 자연생태계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서창 감성 조망대'가 선보인다.

광주시는 지난달 29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민선 8기 역점사업인 '5대 신활력벨트'의 2024년 추진 성과를 공유하는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는 5대 신활력벨트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진단을 통해 내년도 효과적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총괄부서인 신활력총괄과와 5대 벨트별 사업을 추진하는 9개 협업 부서가 참여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으며, 연계 확장이 가능한 추가 사업 발굴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5대 신활력벨트'는 광주시 주요 거점에 재미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으로 △영산강·황룡강 익사이팅벨트 △광주천 생태힐링벨트 △광주송정역 활력벨트 △광주역 창업벨트 △효천역 디지털콘텐츠벨트 조성 등이다.

영산강·황룡강 익사이팅벨트는 지난해 10월 'Y-프로젝트 기본 구상안'을 마련한 이후 6개 선도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용역 착수 등 본격적인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내년 상반기 옛 서창포구에 영산강변 자연 생태계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서창 감성 조망대'를 선보인다.

광주천 생태힐링벨트는 지난 2월 두물머리-발산교 캔틸레버 하부에 걷기 좋은

산책로를 조성했다. 또 전방·일신방직 부지와 인접한 서방천의 수량 확보 및 수질 개선과 기아 챔피언스필드 인근을 힐링·여가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사업 구체화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캔틸레버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상태로 있는 보를 말한다.

광주송정역 활력벨트는 지난 9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사업인 광주송정역 '빛의 관문'을 조성했으며, 광주송정역사를 두 배로 확장하는 증축공사는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등으로 내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역 창업벨트는 창업지원 핵심시설인 '빛고을창업스테이션'이 12월 준공돼 내년 3월 개관할 예정이다. 연구개발(R&D) 융복합 창업 지원시설인 '복합허브센터'도 지난 7월 착공에 들어가는 등 호남권 최대 규모의 '광주역 창업밸리'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효천역 디지털콘텐츠벨트는 문화콘텐츠 인력 양성을 위한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사관학교 1기 운영을 통해 132명의 수료생을 첫 배출했고, 이중 19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올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5대 신활력벨트 사업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내년에는 5대 신활력벨트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거점별 특성을 살려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교두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전남도, 담수방류 어업피해 해법 찾기 온힘

전남도는 지난달 29일 강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담수방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저염분 피해예방 민·관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하고 어업 피해 해법 찾기에 나섰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전남도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시군 관계자를 비롯한 각 지역 어업인대표 등 29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역별 저염분 피해 현황을 공

유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협의체 운영 방안 등에 머리를 맞댔다. 특히 피해 현황과 문제점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주요 양식 시기에 담수 방류가 어업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담수 방류량 및 시기 조정 △배수갑문 개방계획 어업인 정보 제공 △지속적인 환경 모니터링 등을 제안했다.

오지현 기자



북구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성과공유회 지난달 29일 광주 북구 양산동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열린 '주민 모두가 함께하는 건강축제의 장' 성과공유회에서 센터 이용자와 건강동아리 회원들이 건강체험존에서 구강, 피부, 시력, 신장, 혈압 등의 다양한 체험을 하고 있다. 광주 북구 제9

국민의힘 전남도당, 주요당직자 연수 개최

조직결속·중도층 외연 확장 다짐 신입당원 환영·모범당원 공로표창 김 위원장 '단결·화합·새롭게 도약'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전남 담양리조트에서 전남도당 주요당직자를 대상으로 도약과 화합을 위한 당원 연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연수는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 충남 보령·서천 국회의원 장동혁 최고위원,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전남 당협위원장 및 주요당직자 등 총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국민의힘의 쇄신과 당원의 역할'을 주제로 한 장동혁 최고위원의 특강으로 시작해, 새로 입당한 당원을 격려하기 위한 '신입당원 입당식'이 이어졌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정치관계법 강의를 이어 이정현 부위원장이 '국힘이여! 호남이 올 길을 뚫자'를 주제

로 특강을 진행, 참석찬 당원들에게 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했다.

이어 당원 간의 화합과 사기 진작을 위해 준비한 '전남 주요당직자 송년회' 행사에서는 당세 확장과 당원배가에 헌신한 모범당원에 대한 표창식과 함께 2024년 한해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 마지막 날은 선관위가 주관한 정치자금법 강의를 이어 전남도당 조직결속과 중도층 외연 확장을 위한 대책 논의와 함께 실천을 다짐했다.

김화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남도당 주요당직자님들의 헌신이 소중함 및 거름이 돼 정치적 힘지임에도 현재의 전남도당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의 약진과 국민의힘의 전국 정당 도약을 위해 전남 당원들이 단결하고 화합해 새롭게 도약하는 전남도당 건설에 힘을 보태줄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특강을 통해 "정치

적 힘지임 전남에서 고군분투하며 국민의 힘을 변함없이 지지해주시는 전남 당원분들께 감사하면서도 소홀히 한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머리보다 가슴이 앞서는 호남 서진 정책을 추진해 말뿐만이 아닌 도민들 마음에 와닿는 전남 발전을 결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은 "호남은 지난 36년간 사·도지사, 국회의원 등 대다수 주요 요직을 민주당이 독차지했지만 정치적 경쟁 부재로 인해 전남발전은 후퇴했으며 결국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못사는 지역이 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호남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이라고 말하며 지방균형발전이라는 기조를 통해 호남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전남 보수당원 모두가 적극 전파하는데 앞장서는 등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에 적극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오지현 기자